사찰을 수익자로 지정이 가능한 Heungkuk 흥국생명
49재 보험 & 다비 보험
상담 문의 1522-1543

현대불교

구독 · 후원 상담
02-2004-8212
ARS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565호 HYUNBULNEWS.COM 2026년 2월 4일(음력 12월 17일) 수요일 / 불기 2570년

“잿더미 된 고운사 숲 스스로 회복하는 중”

불교환경연대 등 1월 26일 ‘고운사 사찰림 중간보고회’

예상 뛰어넘는 자연복원 속도 확인
포유류 17종 · 야생조류 28종 발견
단순 수목 재생 넘어 다방면 회복
등운 스님 “자연은 자연에 맡겨야”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지난해 3월 발생한 경북 산불로 피해를 입은 조계종 제16교구본사 고운사의 사찰림에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비롯한 생명체들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잿더미가 됐던 사찰림이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있는 가운데, 고운사 주지 등운 스님은 “자연은 자연에게 맡겨두면 좋겠다”며 자연복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불교환경연대와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안동환경운동연합, 서울환경연합, 생명다양성재단 등 5개 환경단체는 1월 26일 의성 고운사에서 ‘고운사 사찰림 자연복원 프로젝트 중간보고회’를 열고 “지난해 8월부터 의성 사찰림의 자연복원 과정을 관찰한 결과 예상을 뛰어넘는 복원 속도가 확인됐다”며 “총 17종의 포유류, 28종의 야생조류가 발견됐으며 참나무류 등의 맹아와 함께 고사리, 야생화 등도 관찰됐다”고 발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이규송 강릉원주대 생물학과 교수, 한상훈 한반도야생동물연구소 소장, 기경석 상지대 조경산림학과 교수, 홍석영 박사가 각각 식생·동물·음향·곤충 영역을 반년간 모니터링한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진은 고운사 사찰림이 단순한 수목 재생을 넘어 다방면에서 입체적인 회복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규송 교수는 현장 조사에서 숲의 골격이 되는 참나무류 등 교목성 수종의 맹아 밀도는 헥타르(ha)당 평균 3922본으로 나타나는 등 고운사 사찰림의 76.6%에서 자연복원 징후가 뚜렷하다고 말했다. 산불 이후 자라난 식생이 토양을 덮으면서, 지난해 8월 기준 토양 침식 위험은 산불 직후인 4월보다 3.57배 감소해 산사태 등 추가적인 재난에 대한 예방 효과도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맹아, 고사리 등 식생이 토양 유실을 막는 ‘녹색 붕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식생이 회복되면서 고운사 사찰림은 멸종위기종 동물의 피난처이자 이동통로 역할을 하고 있다. 천연기념물인 수달, 담비와 삵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비롯한 17종의 포유류가 확인됐다.

조류들도 발견됐다. 기경석 교수에 따르면 올빼미, 큰소쩍새를 비롯해 28종의 야생조류의 생존을 확인했다. 기 교수는 “오색딱다구리 등 산림 건강성 지표종의 출현은 곤충과 조류의 먹이사슬이 복원됐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곤충 조사는 곤충 활동이 줄어드는 10월에 시작돼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홍석영 박사는 올해 계절별 모니터링을 본격화해 과정을 추적하고 복원 방식에 따른 생태적 효과를 입증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중간보고회에서 연구진들은 이번 결과가 자연 회복력에 따라 인위적인 조림 없이도 숲이 스스로 구조를 갖춰가고 있고 불에 탄 고목은 동물의 서식처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산불 이후 무분별한 벌채와 획일적인 조림을 지양하고 자연복원 가능성을 믿어야 한다고 제언한 이들은 “고운사 유역은 도심이 얕아 인공 조림 시 토양 유실 위험이 큰 만큼, 자연 천이에 맡기는 정책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등운 스님은 “지난해 9월쯤 산 정상에 올라가 보니 고사리 등 온갖 풀들과 나무들이 다 움트고 있어서 깜짝 놀랐다”며 “자연은 자연에 맡겨두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시작했고 소나무뿐 아니라 다양한 식생이 함께 어우러져 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고운사 자연복원 프로젝트는 5월까지 이어진다. 사계절 데이터를 확보하는 한편 인근 인공조림지와의 비교 연구를 통해 자연복원의 효과를 수치로 보여준다는 계획이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는 1월 27일 서울 조계사 대웅전에서 ‘불기 2570(2026)년 한국불교지도자 신년하례법회’를 봉행했다.

한국불교 지도자들 “연대로 ‘마음안보’ 이끌자”

종단협, 1월 27일 신년하례법회
국민 화합 · 세계 평화 발원해
대불련에 1000만원 후원금도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종단 지도자들이 2026년 병오년 새해를 맞아 극심해지는 사회적 갈등과 분열 속에서 자비와 화합, 연대를 바탕으로 국민 마음 평안을 위한 ‘마음안보’를 바로 세우는 데 뜻을 모았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진우 스님, 조계종 총무원장)는 1월 27일 서울 조계사 대웅전에서 ‘불기 2570(2026)년 한국불교지도자 신년하례법회’를 봉행했다.

법회는 헌등과 헌화를 시작으로 부처님께 삼배로 신년하례를 올리고, 서로에게 반배로 대중하례를 나누며 새해 인사를 전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종단협 회장 진우 스님은 신년법어를 통해 새로운 한 해의 시작점에서 한국불교가 나아갈 공동의 방향으로 ‘마음안보’를 강조했다. 스님은 “경제적 풍요 속에서도 마음의 평안은 쉽게 얻어지지 않는 시대”라며 “이제 국가안보와 경제안보를 넘어 ‘마음안보’가 새로운 사회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국민의 마음이 안정될 때 가정이 회복되고 공동체가 화합하며 사회는 지속 가능한 평화를 이룰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불교가 종단 간 화합을 바탕으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도덕적 중심이자 사회적 치유의 플랫폼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수석부회장 덕수 스님(천태종 총무원장)은 신년인사에서 “우리는 불심으로 태어나서 불심에 의지해 살아가고, 어떤 어려움도 불심으로 극복해 왔다”며 “굳건한 불심이 나라 안녕과 국민 평화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부회장 상진 스님(태고종 총무원장)은 축원에 나서 대립과 갈등을 넘어 국운 융창과 국민 화합을 기원했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도 “‘자안시중생(慈眼視衆生, 자비의 눈으로 중생을 본다)’을 통해 서로를 자비로운 눈으로 바라보고 화합의 길로 나아가자”고 말했다.

정계인사들의 축사도 전해졌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우리 사회가 갈등을 딛고 국민통합과 화합의 길을 열어가는 데 불교계가 뜻깊은 동행을 계속할 수 있도록 정부는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올해도 크고 작은 일은 생기겠지만, 생기는 즉시 풀려가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며 “불교의 가르침에서 살아가는 힘을 얻고 용기를 내는 시간이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헌승 국회정각회장은 “새해에도 우리 불교계가 계속해서 국민이 내면의 평화를 회복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혜의 길을 밝혀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하정우 청와대 불자회장(AI미래기획수석)은 AI를 비롯한 신기술 발전이 불러오는 불확실한 시대 속에서 불교가 주는 정신적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하 회장은 “부처님 가르침이 담긴 사람 중심의 가치가 국정과 사회 곳곳에 스며들 수 있도록 꾸준히 정진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진각종 통리원장 능원 정사는 동참 대중을 대표해 신년발원문을 낭독하고 △전쟁 종식과 세계 평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정화운동 실천 △재해·재난으로 고통받는 이웃 돕기 △국민 화합과 정치·경제 발전, 한반도 평화 정착 △선명상과 진언명상 등 K-명상 확산 △열암곡 부처님 바로 모시기 △AI 시대 수행과 나눔문화 확산 △다문화사회 약자 보호 △한·중·일 불교계 연대를 통한 동북아 평화 구축 등을 거듭 다짐했다.

한편 이날 종단협은 선민지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장에게 장학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김내영 기자

중앙선관위, 은해사 주지후보 소청 2월 2일로 연기

1월 28일, 제427차 회의서 논의
증인 채택으로 추가 절차 필요해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태성 스님, 이하 중앙선관위)가 은해사 주지후보 선출 과정에서 불거진 투표용지 공개 논란과 관련해 덕관 스님이 제기한 선거소청 심사를 2월 2일로 연기했다.

중앙선관위는 1월 28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분과회의실에서 제427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는 덕관 스님이 신청한 증인을 채택하면서 추가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해당 증인은 당시 선거 과정을 목격한 스님으로 알려졌다.

중앙선관위는 2월 2일 심사에서 증인을 출석시켜 질의하고, 소청인(덕관 스님)과 피소청인(성로 스님)도 함께 불러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중앙선관위 간사 무일 스님은 “선거법상 소청 접수 후 10일 이내 심사 결과를 결정해야 하지만,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7조(선거 소청 및 결정) 2항에 ‘소청이 있는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이의 내용을 조사하고 이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보다 심도 있는 논의와 정확한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추가 심문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회의는 2시간 30여 분 동안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은해사 주지후보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 관련 영상 자료 3건과 양측이 제출한 서면 자료를 검토하는 등 선거 절차 전반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김내영 기자

지장보살 영옥함



지장보살 좌대에 영옥으로 봉안

사찰 납골의 혁신

• 유골이 보석화 되어 깨끗하고 변질이 없습니다.
• 납골의 곰팡이, 변질, 벌레 발생 근본적 해결함.
• 친숙한 사리 형상으로 거부감이 없습니다.
• 모시는 환경과 장소에 구속 받지 않고 경제적
• 관리가 어려워진 산소 정리 후 개장 유골도 가능
• 변질되어 악취 발생 및 물이 찬 유골도 가능함
• 고인별로 영옥의 색상이 다르게 발현됨
• 22년간 기술을 발전시켜 고인 고유의 아름다운
• 색상을 발현시키는 기술이 검증된 원조 회사
• 생성 소요 시간 60분 소요
• 납골을 모셔오고 생성 후 모셔 드리는 서비스 있음
• 영옥의 색상과 량은 고인 별로 다르게 발현됩니다.

깨끗한 오리지널 유골보석

직통상담 010-5235-2677
홈페이지 www.holytec.com

깨끗한 오리지널 유골보석
영옥(靈玉) 사리

SINCE 2002
오리지널 유골보석 전문업체
주식회사 본 향

NAVER 영옥사리 검색